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8년 8월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원 강한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당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8월 19일 내원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관심사를 나누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8월 19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최정섭 원장과 환담을 나눈 뒤 중회의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장 장관은 농정현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연구원이 강한 농식품 산업을 만드는 데 제 몫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 한우 수급 전망 및 대책 보고

최정섭 원장의 인사에 이어 최지현 기획조정실장이 연구원과 부설센터의 운영 현황과 연구사업, 농정지원활동, 향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허덕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장은 농정의 주요 의제인 산지 소 가격의 변화 동향과 가격하락 요인, 한육우 사육두수 현황, 한우 산지가격 전망, 한우농가 소득 전망, 조수의 증대 및 비용절감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우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률 동향분석실장은 '강한 농식품 산업을 위한 농정 방향'이란 제목으로 보

고했다. 김 실장은 농정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의 현실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동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주요 정책과제인 강한 농식품산업의 육성, 신성장 동력, 안전식품 공급 및 식품산업 육성, 소득안전망과 선진형 농촌 복지, 농촌정책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일본 등 선진농정의 발전동력을 소개하며 우리 농정의 시사점을 밝혔다. 이어 주요 농정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토론을 마친 뒤 장태평 장관은 연구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농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와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최정섭 원장은 "정책 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성실한 농정토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 현안과제와 2009년 과제 발굴 제안

우리 연구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안과제나 현장에서 문제로 부각되어 개선책이 요구되는 과제를 9월 19일까지 제안 받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은 농정추진이나 학문발전, 영농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요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제 제안도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제안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연구제안을 클릭해 제안 양식에 맞춰 과제를 제안하면 과제 선정시 적극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기관인 경우 공동연구 수행 가능성과 과제의 시급성도 함께 명기하면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연구의 내실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

우리 연구원은 연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했다.

8월 4일에는 '원예산업의 발전전망과 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고, '시·군 유통회사' 관련 연구진 회의를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그리고 8월 8일에는 대회의실에서 식량수급의 장기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8월 20일에는 소회의실에서 식품관련 법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김 병 루 연구위원

미국의 오렌지 수출업체인 선키스트(Sunkist) 협동조합,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의 자회사인 제스프리(Zespri), 이스라엘 정부에서 만든 전문수출업체 아그렉스코(Agrexco), 네덜란드 원예협동조합 그리너리(Greenery)의 유통자회사, 덴마크의 양돈협동조합의 수출회사인 데니쉬 크라운(Danish Crown)은 세계적인 수출농기업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농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세계적인 수출농기업의 성공요인

우선 이들 수출농기업의 주인은 생산농민이다.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오렌지 생산농가 조합이며,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법인으로 주주가 2,500여 키위 생산농가이다. 아그렉스코는 설립 초기인 1962년에 정부에서 100% 출자하여 수출전문기관으로 출발하였지만, 1994년에 절반의 지분을 생산자조직과 소매조직에 배분하여 생산자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이익금을 모두 생산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그리너리는 1,300여 생산자 조합원들이 주인이며, 데니쉬 크라운 역시 2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주인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소유관계와 상호계약관계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유통과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농민 소유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져 가공분야, 수출분야와 생산자들이 상호 계약에 의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통제를 받는다. 선키스트는 생산자들이 면적과 품종을 선택하나 수확시기

와 수확 후 처리방법은 계약에 의해 패키징하우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판매와 수출은 연합회에서 전담한다. 제스프리는 농가와 선과장, 수출업체 간 협약에 의해 강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아그렉스코는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의 패키징하우스 간 계약에 따라 물량을 공급한다. 그리너리와 데니쉬 크라운도 마찬가지이다.

### 브랜드화와 공동계산제가 열쇠

세 번째 공통점은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로 유통수출기업들의 전문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연합회장이나 조합장이 수출기업의 이사장으로 조합원들의 대표권을 가지나 기업의 경영은 별도의 경영자를 두어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선키스트, 제스프리, 그리너리의 회사명 브랜드, 아그렉스코의 카멜(Carmel), 데니쉬 크라운의 데니쉬(Danish)는 세계적인 브랜드이다. 이들의 품질관리시스템은 철저하다. 선키스트는 연합회에 별도의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고 12명의 품질관리원들이 있어 60개 패키징하우스에 대해 순회 품질관리지도도를 하고, 도매시장에 검사원을 배치하고 있다. 개별 패키징하우스 브랜드를 선키스트 브랜드와 병기하여 품질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제스프리시스템(Zespri System)이라 하여 농약 안전성과 품질관리,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한 품질보증시스템이 철저히 이뤄진다. 그리너리도 일관성 있는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데니쉬 크라운은 이력추적시스템을 비롯해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농민들은 철저한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키스트는 패키징하우스와 생산자가 전량 수탁계약을 맺고 패키징하우스에서 전문수확단이 수확하여 선별포장 후 연합회에 판매를 맡긴다. 패키징하우스는 농가와 주, 월 또는 시즌 단위로 공동계산을 하는데 연합회 본부에서 패키징하우스의 대금지불을 보증하고 있다. 아그렉스코도 생산농가에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수출하고 2주 이내에 생산농가와 공동계산을 한다.

경쟁력 있는 품목 수출업체 육성해야

### 경쟁력 있는 품목 수출업체 육성해야

수출농기업의 성공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생산농민에서부터 협동조합과 수출기업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이 큰 뼈대를 이루고, 농민의 주인 의식과 철저한 계약 이행에 따른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기반이 되며, 전문화된 상품화와 품질관리 체계, 브랜드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5년 내 농림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공격적인 수출농업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목표달성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수입원료를 가공한 가공품을 수출업체가 해외에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의 37억불을 3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별 수출품목의 수출량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선키스트 오렌지, 제스프리 키위, 데니쉬 크라운의 돈육제품 같이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선별하여 품목별 대표 수출업체를 집중 육성해 세계적 브랜드, 세계적 수출농기업으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 생산농민들과 생산자조직들이 출자하여 수출액 10억불의 선키스트와 7억불의 제스프리 같은 수출농기업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파프리카, 화훼, 배, 김치와 같은 품목에 대해 수직적 통합의 틀과 농민조직화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



#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김 창 길 연구위원

온도와 해수면 상승, 기상재해 빈발, 생태계 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범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를 통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 중이며 2013년부터 모든 국가를 동참시키는 '포스트 교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63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정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깨는 용어이다. 이러한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환경과 자원, 에너지 관련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 추진되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정책과 기술개발, 시장구조 재편 등을 통해 환경을 각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논벼 경작과 축산부문의 장내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질소비료,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룬다. 농업부문의 경우 재배방식과

물관리, 토양관리, 가축사양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적절한 활용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농업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생산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탄소농산물로 인정받으면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에너지고효율·온실가스 저배출 제품 구매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탄소캐시백 제도를 농업부문에 도입할 수 있다.

건설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생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2030년을 목표로 기반기획단계(2008~2012), 도약단계(2013~2018), 정착단계(2019~2030)의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반기획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도약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보급 확대, 흡수기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착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흡수-적용 프로그램을 적절히 결합시켜야 한다.

농경지 토양의 유기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해 저장된 탄소가 생물의 잔해로 토양에 들어온 후 토양 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질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경운 재배의 경우 연료 절약과 유기물 분해 억제를 통해 유기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은 아직 교토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탄소거래시장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서는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로 농경지 토양 탄소 흡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부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미래농업 소득원으로 탄소시장 활용

농경지 토양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토양 중의 탄소량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농경지 토양의 탄소흡수원 역할에 대해 농업인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논은 일년 중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7개월은 거의 방치되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는 벼 수확 후 나지로 방치된 논에 자운영, 헤어리벳치 등의 피복작물을 재배할 경우 토양 중에 탄소가 저장되어 ha당 최대 30톤 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농경지 토양에서 온실가스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따르는 메뉴방식의 저탄소 직불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커질수록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농경지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에 따른 토양탄소 크레딧 활용은 미래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미국 의회의 21세기 농정 프로젝트로, 일본 농림수산성의 기후온난화 대책의 핵심과제로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농업관측사업 1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박 동 규 선임연구위원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농업관측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의 생산과 출하 정보를 농업인과 유통업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 가격 등락폭 감소, 관측품목 29개로 늘어

배추, 무, 사과, 배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수급안정 등 관측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2008년에는 쌀, 콩 등을 포함하여 29개로 늘어났다.

농업관측사업으로 과일, 과채 등의 가격 등락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측사업이 실시되기 전후 10년 동안 사과가격 변동계수가 0.36에서 0.32로, 배 가격은 0.37에서 0.32로 줄어들었다.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안정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물은 가축질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격안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생산자는 농업관측정보를 바탕으로 재배면적이나 품목을 조정하기도 한다.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관측정보 인지도는 85%로 높게 나타났고 이 중 55% 정도가 관측정보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농가의 29%가 관측정보에 기초하여 영농계획을 수정한다고 대답하였다. 관측정보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사회적후생 효과가 2006년 기준(14개 품목) 5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업관측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측정보의 정확도 향상, 정보 제공 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제

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는 전국의 1만 4천여 표본농가와 1천 8백여 모니터요원으로 부터 품목별 재배면적, 작황 수준, 향후 재배 의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전화조사로 수집한다. 관측 품목 담당자는 주산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위성정보 등을 활용해 정확도 향상시켜야

생산량 중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 얼마나 시장에 출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산지 유통업체와 저장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다. 이러한 과정도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측사업은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배면적 변화, 작황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또한 유통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태그(RFID)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관측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의 가공,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농업관측사업은 생산자나 유통업 종사자에게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한 바 크다. 사회전반에 걸쳐 농업관측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소비자 지향적으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소비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성 제고해야

소비패턴 변화는 생산자의 영농계획 수립에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과거에는 8kg이 넘는


큰 수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6~8kg의 중간 크기를 선호한다는 정보는 생산자의 영농 실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토마토를 어느 정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영농계획 수립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비지, 특히 주요 시장의 가격정보,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정보, 식품의 영양과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면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 수급불안에 대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측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과거에 비해 생산 비중이 낮아졌거나 또는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 관심이 커지는 품목이 있으면 관측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된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농가가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공급 과잉 또는 과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측정보 내용도 중기 전망을 포함할 때 그 유용성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품목별 재배면적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다 해도 기상여건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급불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농업관측사업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 일본,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대책 강구

김 태 곤 연구위원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대표적인 식량수입국이다. 최근의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관점에서 자급률 목표의 상향 조정, 예산 확보, 관련 조직신설과 법률제정 등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에서 식량가격 폭등은 국민의 소비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비료, 석유, 사료 등의 가격 인상은 생산비를 상승시켜 농업생산 축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식량안보가 일본 농정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식량안보가 농정의 중요과제로 위치

식량안보(food security)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다. 당시의 식량안보는 주식에 대하여 소비확대와 가격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서 수요자의 구매력 관점이 중시되었고, 또 개인 레벨의 식량안보의 필요성과 빈곤문제 등으로 국제적인 관심이 확장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안보의 개념은 주식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공급 측면'의 개념에서 기아문제, 개발문제, 식품안전성 등에 이르는 '수요 측면'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식량안보의 근거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1999년)'에 있다. 이 법은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 진흥'을 통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원적 기능'을 확보한다는 이념 아래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식량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식량 증산, 유통 제한, 기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있다.

일본의 식량안보는 공급측면에서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하여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생산 증대는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의 생산확대로 달성한다.

자급률 목표는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현재의 자급률 목표는 2005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것이며, 칼로리 기준으로 2015년 45%이다.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7월 자급률 목표를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농지·인력·예산 확보와 목표달성 로드맵 작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칼로리 자급률은 그동안 40%를 유지하였다. 2006년 39%로 하락한 후 2007년 다시 40%를 회복하였다. 1% 포인트 상승요인은 2006년 사탕무, 서류, 감귤 등의 생산감소와 쌀 소비감소로 39.3%로 하락하였으나 2007년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쌀 소비확대와 기상조건에 의한 밀, 사탕무, 감귤 등의 생산 증가로 39.8%, 실질적으로 0.5% 포인트 증가하여 40%를 달성한 것이다.

밀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쌀 소비가 2007년은 전년 대비 0.4kg 증가하여 61.4kg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 계속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1% 포인트의 반전이 가지는 정책적인 의미다.

자급률은 생산과 소비 양면에 관계된다. 생산면에서는 석유와 비료 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생산비 상승압박 속에서 항구적인 자급률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는 소득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수요가 증가하는 대두, 맥류, 사료작물의 증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휴경농지의 생산복귀도 생산면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면에서는 공급이 충분한 쌀의 소비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밀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쌀가루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달성 방법은 학교급식에 쌀 소비를 늘리고, 또 남녀노소가 참가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추진하여 지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자급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일본 정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림수산성에 '식량안전보장'을 설치하여 세계 식량수급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자급률 향상, 유사시 대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급률향상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으로 3,025억 엔을 요구하고 있다. 쌀과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비롯하여 맥류와 대두 등의 식부확대를 위한 보조사업을 신설하고, 휴경농지 재활용을 위한 보조금도 확대하고 있다.

2009년을 목표로 원료용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률과 쌀가루 생산 및 이용을 지원하는 법률 등 두 가지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즉 자급률 향상이 일본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식량안보 코스트'는 국민의 합의를 얻고 있다. 식량안보는 식량주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업보호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8월 농정 주요 동향

### 2007년 농림업생산액 35조 8,372억원 규모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농림업생산액 규모가 35조 8,3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1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농업생산액은 2006년 35조 2,327억원에서 2007년 34조 6,85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임업생산액은 2006년 1조 1,569억원에서 47억원 감소하였다.

전체 농림업생산액 중 부문별 비중은 축산업 31.5%, 식량작물 24.9%, 채소 20.9%, 과실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축산물은 축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생산액이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기상 악화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식량작물과 과실 생산액은 각각 전년 대비 5.3%, 5.0%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은 2005년 이후 가격이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곡 생산량이 감소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과실은 2004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가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생산액 감소 추세 속에서 7조 4,830억원을 기록한 채소 생산액만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최근 농림업생산액 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품목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05~2007년 조사 대상 품목 중 상위 30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4%에 이른다. 이 기간 중 상위 5개 품목인 쌀, 돼지, 한우, 우유, 닭 생산액의 평균 비중은 48.5%에 달한다. 이 밖에도 수박, 계란, 감귤, 배추, 포도, 건고추, 딸기, 오리, 인삼이 생산액 6~10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의 생산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산과의 경쟁 및 소비자 선호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입량이 확대되고 있는 품목인 감귤과 콩의 생산액 순위는 2005년 9위, 18위에서 2007년 19위, 28위로 떨어졌다. 반면 건강·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 인삼의 생산액이 증가하여 순위가 2005년 28위, 16위에서 2007년 22위, 10위로 상승하였다.

### 농식품부,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 식량 및 사료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제2녹색혁명은 겨울철 국내 유희농지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 정서와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이번 운동에는 높은 곡물가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외에도 국내 곡물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곡물·조사료 재배기술

발전 등에 따른 재배 확대 여건 조성도 영향을 미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후 조건이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논 101만ha 중 현재 겨울철 경작이 이루어지는 34만ha 외에 추가적으로 32만ha가 경작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2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한 경지에 조사료 17만ha, 녹비작물 9만 5천ha, 바이오디젤용 유채 4만 3천ha, 밀 1만 4천ha 등을 심는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복안이다.

생산 기반 확충과 더불어 500ha 규모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500개소를 육성하고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추진함으로써 판매·유통 측면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수입곡물 대체 효과 8,940억원, 겨울철 유희지 활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4,300억원 등 매년 약 1조 3천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정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논의 활발

국제 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국내 농자재 가격이 수 차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배합사료는 200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45%, 비료는 2008년 1월과 6월 각각 24%, 63% 인상되었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2007년 6월 대비 최대 104%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쌀, 노지작물 농가의 2008년 경영비는 2007년 대비 5~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원유 등의 자재 의존도가 높은 시설작물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올해 2월에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한시적으로 주요 비료원료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농협이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료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도 시행 중이다. 또한 유가 환급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면세유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농민단체 등은 일부 대책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화학비료 사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 비료가격차손 제도 부활, 정부·농협·업계·농가가 부담하는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업용·축산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적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행 병(丙)에서 보다 저렴한 갑(甲)으로 전용 등을 요구하였다.

(동향분석실)

## 허신행 전 장관 '새로운 문명사회와 한국 농업의 발전 방향' 특강



허신행 전 장관은 월례초회 특강에서 인력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발전 방향을 밝혔다.

연구원은 8월 1일 대회의실에서 월례초회를 가졌다. 최정섭 원장은 농림기술관 리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 발전에 기여

한 직원들을 포상·격려한 뒤, 6월과 7월에 원내외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며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

### 선진국농업 ①

##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 네덜란드

### 농업의 성장 동력, 세계 최고의 연구·지도·교육 시스템

경상남북도 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 네덜란드는 실속 있는 나라이다. 전국토 중에서 임야는 8%에 불과한 평지로 경지면적이 190만ha나 되어 우리나라 경지면적보다 넓다. 물을 제외한 육지 중 56.5%가 경지로 이용된다. 델타지역의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관리체계가 네덜란드 농업과 시설원에 대국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업인구는 20만 명으로 인구의 1%대, 농가수가 7만8천여호로 적어 호당 경지면적이 24ha나 되는데, 우리나라 농가보다 훨씬 규모화 되어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호당 면적이 5ha에 불과했으나 규모화, 전문화, 기계화로 60년 만에 24ha까지 늘어났다. 과히 '신은 세계를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스스로 국가를 창조했다'는 말이 어울린다.

네덜란드는 유리온실에서 화훼와 채소를 재배하는 시설원예작물의 세계 최대국가이다. 유리온실은 10,400ha로 세계의 유리온실 면적의 1/4이나 차지하고 있다. 초지가 넓고 프랑스 등 인근 유럽연합국가로부터 싼 사료곡물을 수입해 낙농, 비육우, 양, 염소 등 축산업이 발달하고 노지에서 씨감자, 양파, 구근류, 묘목을

생산해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 같은 농업 기반으로 네덜란드는 2007년 농산물을 537억 유로나 수출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이 되었다. 네덜란드 전체 수출액 가운데 17%를 농산물로 벌어들이고,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232억 유로나 되어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전산업 부가가치 중에서 농식품 부문의 비중이 9.4%이고, 전산업 고용 중 농업 및 농관련 산업 비중이 10.3%나 된다. 화훼와 육류, 낙농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화훼 무역은 전세계 무역에서 60%나 점유하고 있다. 화훼, 토마토, 씨감자, 달걀, 치즈, 맥주, 코코아제품은 세계 1위의 수출품이며, 돈육과 초코릿 제품, 담배는 세계 2위의 수출품이다.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선진국이 된 데는 유럽시장이라는 거대시장이 있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잘 발달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네덜란드는 농업에 대한 연구·지도·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농업자 연식품품질부에서 모든 농업 연구·교육·지도 시스템을 관할하여 농업기술, 농

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이 '새로운 문명사회와 한국 농업의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허 전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세계 500대 기업 중 80개만 살아남았는데 생존기업은 핵심사업을 세상의 변화에 맞춰 바꿨고, 핵심사업이 성공한 뒤 연관산업을 확산했으며,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이를 타파할 수 있도록 80대 기업의 생존전략을 적용하여 농업·농촌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연구원이 담당해 주길 당부했다. 허 전 장관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동시에 유능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농림예산 중 약 40%를 연구개발과 혁신, 농업교육에 배정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연구조직들을 와계닝겐 대학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여 연구와 교육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지도를 완전 민영화하고 그 대신 민간기업체를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연구결과를 기업체에 전파하여 민·관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농업교육은 2단계의 중등농업교육을 비롯해 2단계의 고등농업전문교육으로 단계별 심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요인은 생산농민의 조직화이다.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농민들은 품목 연구그룹을 만들어 전문적인 기술을 교류하고 현장교육도 받는다. 원예, 경종작물, 낙농, 육류 등 부류별 판매협동조합에서 농산물판매를 담당하고, 대농민 신용업무는 협동조합은행인 라보뱅크에서 전담하고 있다. 7만 8천여 농가 중에서 5만여 농가가 원예농민연맹을 조직하여 농정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농기업과 일반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균형 잡힌 경제정책, 농정 절차의 민주화와 중앙 및 지방정부, 품목조직 간 연계와 협력체계, 농가의 규모화·전문화·기업화, 농지교환분합, 농로확포장, 토양개량, 물관리체계 등 성공적인 인프라 정책이 네덜란드를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동행분석실>

## 농업관측사업, 사회적 후생증대효과 534억 원에 달해 관측사업 평가결과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



농업관측사업의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8월 6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연구원은 1999년부터 시작된 농업관측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월 6일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울대 김관수 교수는 ‘농업관측사업 평가결과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결과 “농업관측사업의 사회후생효과가 2006년 기준(14개 품목) 5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자 후생효과 부분이 288억 원, 생산자 후생효과 부분이 246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안정화효과 분석결과 배·감귤·사과를 포함한 과일과 토마토·수박을 포함한 과채, 양파·고추·오이·무·배추를 포함한 채소에서 관측사업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대 한성일 교수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의 농업관측 사례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농축산물의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물론, 정기적인 소비관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쌀의 경우 2007년까지 농림성 분기별 소비조사를 실시하여 쌀의 소비 및 구입동향을 공표해 왔다”고 말하며, “2008년부터는 총무성「가계조사」로 업무가 이관되어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의 소비동향도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1984년 식량농업정책연구소를 설립해 미국의 농업부문과 국제상품시장에 대하여 매년 기본적인 경기전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관측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대 연구진이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관측정보의 정밀도와 효율성, 적시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관측정보의 정밀도 제고를 위해 정보수집 기능 강화, 위성정보 및 전자태그(RFID) 정보 활용, 관측정보 가공·분석 능력 제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측품목의 조정, 소비관측정보의 강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농업관측정보의 확산과 더불어 관측사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의 신속한 분산, 국제곡물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연구진 주요동정

△ 이동철 선임연구위원은 8월 26일 농업연수원에서 농림수산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림수산물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8월 28일과 29일 부산 해운대 한화컨도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중 FTA 추진 동향과 농업부문의 과제’, 권오복 연구위원은 ‘소비관측의 경제 효과와 추진방안’,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주요 농산물의 대한 비대칭 가격 전이’, 전상곤 전문연구원은 ‘시장 지배력이 관세 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미 FTA 하에 낙농산업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 김영훈 연구위원은 8월 25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남북농림수산물 사업협회가 개최한 남북농림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남북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과 제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송미령 연구위원은 8월 12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한국농업경영인대회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정필 부연구위원은 8월 7일 경상대학교에서 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대상으로 ‘농식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김용렬 부연구위원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에서 ‘농업발전지수를 통한 한국의 농촌지역 농업발전 분석’, 한재환 전문연구원은 ‘미국 소비자의 품질향상된 유전자 변형(GM)쇠고기에 대한 지불의향: 한국 GM시장에 대한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8월 11일 내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선임 이사장이 8월 11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 현황과 주요 연구사업, 현안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세원 이사장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업경제 분야의 유일한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연구원에 더욱 다가가는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기관 평가, 당면 현안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